



# 1849년 울릉도의 이양선에 관한 흥해군의 첩보(牒報) 및 영좌병영의 장계(狀啓)에 대한 해제 및 번역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흥해군 첩보 3건과 영좌병영 장계 1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정부의 통치는 해방(海防) 정책과 수토(搜討) 제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난 몇 해 동안 울릉도 수토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영토해양연구』에서도 <사료 해제>란을 통하여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를 소개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할 사료는 울릉도에서의 이양선(異樣船) 수토(搜討)에 관한 내용으로 흥해군(興海郡)의 첩보(牒報) 3건(16번)과 영좌병영(嶺左兵營·慶尙左兵營)의 장계(狀啓) 1건(8번)이다.

흥해군의 첩보는 경상도 흥해군수 이정호(李鼎鎬)가 1849년 울릉도의 이양선 수토와 관련된 사건의 전말을 3차례에 걸쳐 영좌병영(嶺左兵營·慶尙左兵營)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흥해군의 첩보들을 등사해 둔 책자 속에 있다. 이 책자는 현재 경기도 파주 헤이리예술클럽에 있는 타임캡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몇 차례 박물관을 방문하여 소장 자료들을 관람

하면서, 이 책자도 직접 살펴보았는데, 책 표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책 제목을 알아볼 수 없었다. 책자의 내용은 대부분 흥해군의 첩보를 등사한 것이었다. 박물관 소장 자료 중에 『첩보초(牒報草)』라는 제목의 또 다른 책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소개할 흥해군 첩보가 들어 있는 책자의 제목도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자와 첩보의 내용은 몇 년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품명품>에 소개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귀중한 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주고, 또 첩보의 사진 촬영 및 학술지 게재를 쾌히 허락해준 타임캡슐박물관 오채현 관장님께 지면을 빌려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어서 소개할 영좌병영의 장계는 경상좌병영이 흥해군에서 올린 첩보 3건을 다듬어 중앙 관서인 비변사에 올린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통영의 지시에 따른 이양선 수토 내용과 함께 1849년 월송만호가 울릉도를 수토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주목을 받아 왔다.<sup>1</sup> 영좌병영의 장계를 다시 소개하는 까닭은 흥해군의 첩보와 연속되어 있으므로 연구자들에게 비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료들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선 후기 일선 행정기관인 군(郡)에서 지방 상급기관인 도(道: 감영이나 병영 또는 수영)로 보내는 문서 즉 첩보와, 그 첩보를 받은 지방 상급기관(여기서는 병영)이 그 첩보를 기초로 새로 장계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관청(여기서는 비변사)으로 보내는데, 각각의 문서 양식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서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등사하여 남긴 장계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지방의 군에서 등사하여 남긴 첩보는 관리가 되지 않고 흩어져버려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번 소개할 자료들에는 1849년 월송만호에 의한 정기적인 울릉도 수토가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이사부와 동해』 14호, 한국이사부학회, 182~184쪽 참조.

1849년 울릉도를 수토한 월성만호는 이규상(李圭祥)이다. 이규상의 수토보고서는 강원감사 박용수(朴容壽)의 장계에 인용되어 있으며, 이 장계는 『일성록(日省錄)』에 실려있다.<sup>2</sup>

셋째, 이 사료들을 통하여 조선 후기 이양선의 출몰과 함께 이양선 수토(搜討)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 전기부터 도서(島嶼) 수토라는 형식의 수토 제도가 18, 19세기에 이르러 이양선 수토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 해방(海防) 관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조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영토해양 연구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 II. 사료의 내용에 대하여 : 리앙쿠르호와의 조우?

창원의 김상길(金尙吉) 등은 통영(統營)으로부터 이양선(異樣船)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받고, 통영의 군관 서문억과 함께 1849년 4월 3일 울릉도로 출발하여 그달 28일 울릉도에 도착한다.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파손되었다. 때마침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수토하던 월성만호가 수토선을 이끌고 울릉도를 떠나면서 배가 좁다는 이유로 김상길 일행을 두고 통영 군관 서문억만 데리고 육지로 떠난다. 그리하여 김상길 일행은 석 달 동안 울릉도에 머물며 배를 새로 만들어 육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체류하던 중 윤4월 6일 이양선의 선원들을 만나게 된다. 이양선의 선원들이 먼바다에 큰 배를 두고, 물을 구하기 위해 작은 배로 울릉도에 상륙한 것이다. 이 '먼바다의 큰 배'가 리앙쿠르(Liancourt)호일 가능성은 없는가?

2 이규상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울릉도 수토 시 통영의 지시를 받고 온 경상도 선박을 포함하여 울릉도에 몰래 들어온 배 18척을 적발하고, 수토선이 비좁아 적발한 선박의 선주 18인을 월송진으로 데리고 나왔다. 박용수의 장계 내용은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집,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119~120쪽 참조.

리앙쿠르호<sup>3</sup>는 동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중 1849년 1월 17일 독도를 발견하게 된다. 당시 리앙쿠르호의 선장 드 수자(Galorte de Souza, 일명 Lopez)가 해군성에 올린 보고서<sup>4</sup>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49년 1월 24일 나는 대한해협이 한가운데 위치한 쓰시마 북쪽을 통과한 후 다줄레(울릉도)로 향했다. 1월 27일 나는 다줄레가 북동 1/2 북 방향으로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그때 동쪽에 큰 암석 하나가 있었다. 이 암석은 어떤 지도와 책자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 암석의 위치는 북위 37°2', 동경 129°26'이었다.<sup>5</sup>

이 내용이 프랑스의 『수로지』에 실리고 또 각국의 해도(海圖)에 리앙쿠르암(Rochers Liancourt, 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면서, 독도는 유럽에서 리앙쿠르암으로 불리게 된다.

한편, 리앙쿠르호의 선장 드 수자가 해군성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고 한다.

1849년 4월 12일에 나는 울릉도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섬에서 목재를 채취하기 위해 두 개의 작은 보트를 보냈다. 나는 그 섬이 보이는 지역 근처를 순항하면서 7월 30일까지 이렇게 그 근처에 있었다. 이 순항은 북위 36°20'과 42°35' 사이, 동경 127°로부터 133°35'까지의 거리를 순항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에 28마리의 고래를 잡았고, 그중에서 8마리는 배에 인

3 리앙쿠르호에 대해서는 J. T. Pasquier, 1983, “프랑스 선의 동해 진출사”, 『영토문제연구』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와 정인철·Pierre-Emmanuel Roux,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7,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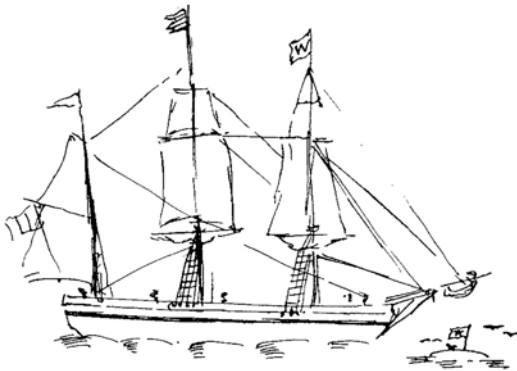
4 이진명에 따르면, 로페스의 보고서는 찾을 수 없으며, 해군성 인사국장의 공문에 수록된 것이 있다고 한다.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65쪽.

5 이진명, 위의 책, 65~66쪽.

양했다.<sup>6</sup>

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리앙쿠르호의 선원들이 4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목재 채취를 위해 그리고 기록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식수를 구하기 위해 울릉도에 상륙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앞의 조선 측 기록을 보면 양력 5월 27일 저녁 이양선의 선원들과 조우하고 그 이틀 뒤에 또 그들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단 시간적으로는 조우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이 고래잡이에 종사한 포경선 선원들이었으며, 또 그 선원들이 입은 지팡이와 같이 짝 조인 바지 등은 프랑스의 군인들이 입는 바지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리앙쿠르호 선장의 후손이 스케치한 아래의 그림을 보면 큰 돛대가 3개인데, 1849년 울릉도에서 목격된 포경선의 돛대는 4개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리앙쿠르호 스케치가 틀렸을 수도 있다.

물론 프랑스 포경선이 아니라 미국 포경선일 가능성도 있다.<sup>7</sup>



〈그림 1〉 리앙쿠르호 스케치

출처: 정인철·Pierre-Emmanuel Roux,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164쪽에서 재인용

6 J. T. Pasquier, 앞의 글, 183쪽.

7 한편, 미국 포경선 이어리(Erie)호도 1849년 3월 11일부터 6월 10일경까지 약 3개월간 동해에서 조업하였으며, 이때 울릉도에 상륙한 기록(4월 11일자 항해일지)도 있다. 박구병, 1995, “미국포경선원의 한국영토 상륙과 한국인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38(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35쪽.

### Ⅲ. 흥해군 첩보의 원문 및 번역문

#### 1. 첩보1의 원문 및 번역문

爲牒報事. 卽接本郡東上面豆毛浦里任手報內, “昌原府新江里居金以方, 入鬱島, 新造船隻, 來泊本津是如”, 而<sup>8</sup>鬱島係是禁地, 則自鬱島造船來泊, 極爲驚駭, 故發遣鄉色, 摘奸船樣及所載汁物, 則香木<sup>9</sup>·草茺外, 有異國文蹟, 故捉入該船主金以方不喻金尙吉, 查其入鬱島根因及所見如何, 則以爲 “今四月日, 統使道主招入矣身分付, 以爲‘見今異舶, 出沒非常, 而莫知其何國人物, 何事往來. 聞方留住<sup>10</sup>於鬱島等地, 汝其往鬱島偵探以來, 而如無異國物件之持來, 則汝之偵探與否, 無以憑信, 期於持一件可信之物以來也, 然而汝不可獨任是役, 與軍官徐文億偕往也’, 如是分付教是, 故矣身與徐文億, 率格軍二十八名, 同月初三日, 駕船直往鬱島, 而及其登陸後, 船艙不好, 所騎之船, 仍爲破碎, 故果爲改造船隻, 而島中留連之際, 或登山而瞭望異船, 或臨津而搜探踪跡是加尼, 一日夕, 何許七長七短鬼鬼崇崇之人七八箇, 汲水次來到, 形貌則赤黑白不齊, 衣服則赤黑白各異, 非倭非胡, 所見蹊蹊, 故心知其異國人, 延之就席, 書問以何國人何事來, 則渠以粉筆書木板以給, 而一字不知是遣, 矣身指口指腹, 示以飢餓之狀, 則渠矣出給一枚果一片餅, 故矣身執以爲異國信物. 仍爲回還之路, 到泊于平海郡越松, 軍官徐文億, 自陸歸去, 矣等騎船出去, 而風濤不利, 到泊于本郡豆毛津是如乙仍于”, 所見其所謂異國人木板所書, 則雲形鳥跡, 似篆似畫, 想是該國方書, 而莫辨何字是乎旆, 搜覓統營搜討公文, 則答以爲 “徐文億<sup>11</sup>持去, 矣身處, 一無所持是如是乎所”, 統營何等體重, 則尙吉必無假托之理, 而所持者乃是異國筆跡, 搜覓而未有公文眞的, 則事係重慎, 有不可憑渠口傳而擅

8 如而 : 원문에는 而如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교정 표시에 따라 如而로 바로잡음.

9 木 : 원문에 本으로 되어 있으나 木으로 바로잡음.

10 住 : 원문에는 注로 되어 있으나 住로 바로잡음.

11 文億 : 원문에는 億文으로 되어 있으나 文億으로 바로잡음.

自放送乙仍于, 昌原船主金尙吉, 船格二十八<sup>12</sup>名, 姑不放送, 使該洞頭民着實供饋, 船隻段, 置亦爲繫留後, 船人姓名, 異國物件, 船隻把數, 修成冊牒報爲去乎, 道以參商云云.

참보합니다. 막 접수한 본군[경상도 흥해군] 동상면 두모포(豆毛浦) 마을 임원의 보고[手報]에, “창원부 신강리에 거주하는 김이방(金以方)이 울도(鬱島)에 들어가 새로 선척을 만들고, 본 진(津)으로 와서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울도는 금지(禁地)인데, 울도에서 배를 만들어 와서 정박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향색(鄕色)을 보내 배의 모양 및 신고 있는 집기를 조사해 보니, 향목(香木)과 초둔(草蓴) 외에 다른 나라의 문적(文蹟)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선주(船主)인 김이방뿐만 아니라 김상길(金尙吉)을 잡아 들여 울릉도에 들어간 근본 원인 및 본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이번 4월에 통제사가 저를 불러들여 분부하기를, ‘오늘날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로 오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들으니, 지금 울도 등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 네가 울도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 만일 외국의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네가 정탐한 것인지 여부를 증빙하여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믿을 만한 물건 한 가지를 가져오도록 하라. 그리고 네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군관 서문억(徐文億)과 함께 가거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문억과 함께 격군(格軍) 28명을 거느리고 같은 달[4월] 3일[양력 4월 25일]에 배를 타고 곧바로 울도로 갔습니다. 섬에 상륙한 후에 선창(船艙)이 좋지 않아 타고 있던 선척이 그대로 부서졌으므로 과연 새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섬 안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멀리 이양선을 망보거나 나루에 가서 종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척 안팎 되는 괴기한 사람 7, 8명이 물을 길기 위해 왔습니다. 얼굴은 붉은색, 검은색, 흰색으로 균일하지 않고, 의복 또한 붉은색, 검은색, 흰색으로 각기 달랐는데, 일

12 八 : 원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八로 바로잡음.

본인(倭)도 아니고 중국인(胡)도 아니었으며 괴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외국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러서 자리에 앉게 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를 글로 물어보니, 그는 분필로 나무판에 써서 주었는데, 한 글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과 배를 가리켜 배고픈 모양을 보이니, 그가 과일 하나와 떡 한 조각을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글씨를 쓴 나무판을 외국의 신물(信物)로서 가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평해군의 월송진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군관 서문억이 육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바람과 파도가 좋지 않아 본군(興海郡)의 두모진(두모포)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른바 외국 사람이 목판에 쓴 글을 보니, 구름 모양이나 새 발자국 같았으며, 전서(篆書)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방서(方書)이기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통영의 수토 공문(搜討公文)을 찾으니, “서문억이 가지고 갔고, 저희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통영의 체통이 얼마나 중한 것인데, 김상길이 거짓 핑계 달 이치는 기필코 없습니다. 지닌 것은 바로 외국의 필적이고, 찾아보았지만 공문의 진본은 없었습니다. 일이 신중히 해야 하는 데 관계된 것이고 그가 말로 전하는 것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마음대로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창원의 선주 김상길 및 격군 28명은 아직 풀어주지 않고 그 마을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착실히 먹여 주도록 하고 선척도 묶어서 머물러 두게 한 후, 뱃사람의 성명, 외국의 물건, 선척의 발(把)수 등을 책자로 만들어 첩보하오니, 아뢴 바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2. 첩보2의 원문 및 번역문

爲牒報事。鬱陵島造船船主金尙吉等，船載物件，船格姓名，成冊修報使回送及秘開內乙用良，“具格盤問次，己酉七月二十二日，鬱陵島造船船主金尙吉，年六十四，問目白等，‘汝矣等二十八名，自統營何日發船，何日到鬱陵島，何日破船，留連幾日，造船後，何日發船，何日到平海郡是旆，當初

自統營發船時，船中所載何物，徐文億自越松，因何歸去，在於何日，異國人物，何日逢着，人數幾許是旃，旣云汲水，則來自何方，去於何方，汲水器何樣器物是旃，人物段，頭髮面髻，身長鼻眼何如是旃，衣服段，頭着足着及上下衣樣，製以何<sup>13</sup>件，染以何色，汲水船大小何如，汲水外，更無他船是隱喻，一從所見所聞，從實直告，亦盤問教是臥乎所在亦，”“矣身因統使道分付，向往鬱島次，本四月初三日發行，同月二十八日到泊是如可，閏四月初一日，爲風濤所泊，仍爲破船，留連該島，改造船隻，而自本四月二十八日，至七月初一，留連日字，合爲九十一日是乎旃，矣身旣以異船偵探入島，故留連之際，或登高瞭望，或臨津遠候矣。閏四月初六日，如山大船，直向鬱島，而先駕一葉小船，使之前導是如可，見矣等之在島，自大船上揮動紅旗，仍爲退去，而大船上，中建四帆，帆布上下兩端青緣，而中則色白，前後左右，又掛小帆四箇，而上下青，中央白，與大船同，而船之廣可爲二十餘把，長可四十餘把，以其仍即退去之致，長廣俱爲假量，而船中人物，不知幾十幾百是乎旃，前導小艇體製，頭尾窄尖如梭子樣，而泊于該島淺灘，怪鬼輩八人，各持汲水器，器樣如皮負袋，自南入來，徒跣步水，上衣則如我國赤古伊而稍長，袖樣稍廣，頭上以甚麼毛物抹額，下衣則如我國袴子，而下段貼肉繫束，小無間隙，狀類糲杖之直立，足穿淨襪，又穿皮鞋，而襪與鞋與我國一樣，而但鞋則以皮合縫前面是遣，毋論上下衣，以青紅黑白染色，而紬與緞間，莫知其名是乎旃，人形段，頭髮髻鬚，削盡無餘，而身長六七尺不齊，耳目口鼻，如我國人，而顏貌則兩漢深黑，三<sup>14</sup>漢粉白，一漢黃，兩漢赤，有若染色，明是異類，及其登岸後，與矣等相對而立，彼此驚疑是如可，矣身強爲托大，携一小方席，呼之曰，‘公等請坐’，彼們張目鼓頰，有若咆喝，故矣身意其責以草率，入幕鋪席後，復曰，‘公等坐坐’，彼們始爲入幕坐定，故矣身書問曰，‘何國居生乎?’，彼們以粉筆書木板以給，而非畫非篆，一字不知是遣，又問以

13 以何：원문에는 何 이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교정표시에 따라 以何로 교정함.

14 三：두 명은 兩漢으로 표기하고 있고, 총 8명이므로, 三漢이 되어야 함. 원문에 二로 표기되어 있으나 三자의 오자로 보아 수정함. 『영작병계록』에도 三자로 되어 있음.

‘何幹而來’, 則叩頰縮口, 爲噴水之狀, 而以愚意揣之, 噴水之物, 鯨魚是已, 或料獵鯨之人是隱喻, 亦未能的知是乎旃, 矣等指口指腹, 作佯餓狀, 則彼們自袖出給一箇餅一箇果, 故果爲受置, 彼們各持烟茶竹, 而製作則如我國所謂土造臺是乎所, 一箇竹下體折傷, 故矣等懇請給我, 則彼們投地, 許我拾取乙仍于, 並與書板餅果, 而深藏繫束, 以憑日後統營標證是乎旃, 彼們對坐良久, 顧其同伴曰, ‘去矣’, 而聲音與我國人無異, 矣等試撫其頭, 則曰, ‘勿阿’, 而聲音同亦是乎矣. 一自歸後, 不復入來, 日後汲泉, 改道于越谷, 而此亦自南來自北去是乎旃, 徐文億自陸歸去事段, 前日取招時, 荒迷不次, 以行到越松歸去樣納供矣. 今復思惟, 則閏四月初一日破船後, 偶逢搜討入來之越松萬戶, 同騎該船, 先自歸去, 矣等自鬱島出來, 初不到泊于平海越松是乎旃, 統營發程時, 船中所載之物, 不過糧米三十石是如乙仍于”, 今尙吉處, 具格盤問後, 仍爲嚴囚爲乎旃, 木板及片紙書, 堅封上使是在果, 尙吉等所告內, “此是矣等入島逢異船信物, 統營往現之日, 以此爲證是如”, 則鑑下後, 還爲下送何如爲乎旃, 搜討公文段, 文億歸去之日, 以爲持去是如, 一向牢拒, 愚蠢船民等, 莫念所重之在茲, 任他文億之持去, 似出真情是乎旃, 舉行該吏指報報, 而本郡以不關邊情之致, 所報涉殊疎略, 果有該吏指報之舉, 不勝惶悚是乎旃, 報牒稽滯事段, 邊報何等慎重, 而初十日所報, 十七日始呈, 萬萬駭惋持者, 漢雖有中路得病之供, 而其在重邊報之地, 不可仍置, 故自本郡爲先嚴徵爲乎旃, 緣由并以牒報爲臥乎事.

참보합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만든 선주 김상길 등, 배에 실은 물건들, 선격(船格)들의 성명을 책으로 만들어 올린 보고에 대한 병마절도사의 회송 및 비밀히 얼어볼 내용에, “형구를 채워 다시 심문할 것, 기유년 7월 22일, 울릉도에서 배를 만든 선주 김상길 나이 64세, 심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 28명은 통영에서 언제 발선(發船)하고 언제 울릉도에 도착하여 언제 파선(破船)되어 며칠간 머물렀으며, 배를 만든 후 언제 발선하여 언제 평해군에 도착했으며, 당초에 통영에서 발선할 때 배 안에 무슨 물건을 실었고, 서문역은 무엇 때문에 월송에서 돌아갔으며 그것이 언제인지, 이국인들은 언

제 만났는지, 사람 수는 몇이나 되며, 이미 물을 길었다고 하였으니 올 때는 어느 방향이었고 갈 때는 어느 방향이었는지, 물을 끄는 급수기(汲水器)는 어떻게 생긴 물건이며, 인물들은 머리털과 얼굴 수염, 신장(身長)과 눈코는 어떠한지, 의복은 머리에 쓴 것과 발에 착용한 것 및 상하 의복의 모양이 몇 겹으로 만들어졌는지, 무슨 색으로 염색되어 있는지, 급수선의 크고 작음은 어떠한지, 급수선 외에 다시 다른 배는 없는지, 하나같이 본 바와 들은 바를 사실대로 직고하도록 캐묻는 바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하기를 “저희들은 통제사의 분부로 인하여 울릉도로 향할 때에는 4월 3일 출발하였고, 동월 28일 도착하여 정박하였으며, 윤4월 1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정박하였다가 곧 파선을 당하고, 그 섬에 계속 머무르며 선박을 새로 만들었는데, 4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섬에 머무른 날짜가 도합 91일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양선 정탐 때문에 입도하였으므로, 머물러 있을 때 혹 높은 곳에 올라 멀리 요망하거나 혹 나무터에 임하여 멀리 살폈습니다. 윤4월 6일, 산처럼 큰 배가 울도로 곧장 향하였는데, 앞선 한 조각 작은 배가 저어 와서 앞에서 인도하다가, 우리들이 섬에 있는 것을 보고, 큰 배 위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자 곧바로 퇴거하였습니다. 큰 배 위에는 가운데에 4개의 돛을 세웠는데 돛의 아래위 양단에 파랑 가선을 두르고 있고 가운데는 백색이며, 전후좌우에 또 작은 돛 4개를 걸어놓았는데, 위아래는 청색이고 가운데는 백색이며 큰 배와 같았습니다. 배의 너비는 20여 발(匁)이고 길이는 40여 발인데, 배가 곧 물러날 때였으므로 길이와 너비는 모두 어렵짐작한 것입니다. 배 안의 인물이 몇 십 몇 백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인도한 작은 배의 형태는 머리와 꼬리가 좁고 뾰족하여 마치 배틀의 북과 같은 모양이고, 그 섬의 앞은 여울에 정박하였습니다. 귀신처럼 생긴 놈 8명이 급수기(汲水器)를 메고 있었는데, 급수기의 모양이 가죽부대와 같이 생겼고, 남쪽으로부터 들어와 맨발로 물을 건너왔습니다. 상의는 우리나라 저고리와 다름이 없었는데 조금 더 길었으며, 소매는 조금 더 넓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물(毛物)을 이마에 동여맸습니다. 하의는 우리나라 속옷 바지(袴子) 같은 것인데, 단 아래는 살에 붙여 묶어 조금도 틈이 없어서 모양이 끈게 세

위놓은 면발이나 지팡이 같았습니다. 발에는 깨끗한 버선을 신고 다시 가죽 신을 신었는데, 버선과 신의 모양은 우리나라와 같았으나, 다만 신은 앞면을 가죽으로 봉합했습니다. 상의와 하의를 막론하고 청색, 홍색, 흑색, 백색으로 염색을 하였으며, 재질은 명주와 비단 사이였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두발과 수염을 모두 깎고 남겨놓은 것이 없었으며, 신장은 6, 7척으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목구비는 우리나라 사람과 같았는데 얼굴 모습은 두 높은 길은 검은색, 세 높은 분처럼 하얀색, 한 높은 누런색, 두 높은 붉은색으로, 마치 염색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분명히 이국의 다른 부류였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오른 후 저희들과 서로 마주보고 섰는데, 피차 놀라고 의심하다가, 제가 억지로 큰 것을 밀쳐두고 작은 방식 하나를 가져와 부르며, ‘공(公)들은 앉으십시오.’라고 하자, 저들은 눈을 부릅뜨고 뺨을 두드리며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홀히 대함을 책한다고 생각하여 천막에 들어가 자리를 편 후, 다시 ‘공들은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저들이 비로소 천막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묻기를,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자, 저들은 분필로 나무판에 써서 주었는데, 그림도 아니고 전서(篆書)도 아니어서 한 글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무엇을 하러 왔는가?’라고 묻자, 뺨을 두드리고 입을 오므리며 물을 뱉은 모양을 하였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 미루어보건대, 물을 뱉는 것은 고래이니, 혹 고래를 잡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입과 배를 가리키며 배고픈 모양을 짓자, 저들이 소매 속에서 떡 한 개와 과일 한 개를 내어 주었으므로, 과연 받아서 두었습니다. 저들은 각각 담뱃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든 모양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민간에서 만든 담뱃대와 같았습니다. 담뱃대 하나가 아랫부분이 부러졌기에 저희들이 달라고 간청하니, 저들은 땅에 던져 우리가 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울러 서판, 떡, 과일과 함께 깊이 넣고 단단하게 싸서 나중에 통영에서 증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마주앉아 한참을 있다가 그 동료를 돌아보고 ‘거의(去矣: 가자)’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 삼아 그 머리를 어루만지자, ‘물아(勿阿: 아첨하지 말라)’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역시 같았습니다. 한번 돌아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샘의 물을 기르는 것은 월곡(越谷)으로 길을 바꾸었는데, 이 또한 남쪽에서 와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서문역이 육로로 돌아간 일은 전날 문초를 받을 때 흥미하여 두서없이, 행차가 월송에 도착하여 돌아간 양 공초를 바쳤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건대 윤4월 1일 파선을 당한 후, 수도하러 들어온 월송만호를 우연히 마주쳐 함께 그 배를 타고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은 울도에서 나와 처음에 평해 월송에 도착하여 정박한 것이 아닙니다. 통영에서 출발할 때, 배에 실은 물건은 양미 30석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지금 김상길이 있는 곳에서 형구를 채워 다시 심문한 후에 여전히 엄히 가두어 두었으며, 목관 및 편지 글씨는 굳게 봉하여 병마절도사에게 올립니다. 김상길 등이 아뢰는 것 가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도하여 이양선을 만난 것을 증명하는 물건이므로 통영으로 가서 알현하는 날 이것을 증표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살펴보신 후 다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도 공문은 서문역이 돌아가는 날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굳게 거부하니, 어리석은 뻔사람들이 중한 것이 이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니, 서문역이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마도 진정에서 나온 듯 합니다. 담당 관리가 지목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고를 거행하고, 본군이 변방 사정의 지극함을 보지 못하여 보고가 매우 소략하게 되었으니, 과연 담당 관리가 지목하여 보고한 거조가 있었던 것에 대해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첩보가 머물러 지체된 일은 변방 사정에 대한 보고가 얼마나 신중한 것인데, 10일 보고할 것을 17일 비로소 올리면서 만만하고 놀랍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자가 비록 중로에서 병을 얻어 바쳤을지라도 중요한 변방 사정 보고의 처지에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그리하여 본군에서 우선 엄히 징치하오며, 연유를 아울러 첩보합니다.

### 3. 첩보3의 원문 및 번역문

爲牒報事. 本郡豆毛浦到泊昌原船主金尙吉等, 前後取招, 各營報辭及各營門回題牒後報使回送內乙用良, “嚴問次, 己酉八月初六日, 昌原船主金尙吉, 年六十四, 問目白等, ‘兵營關文, 據汝矣納招時, 謂以徐文億於偵探之後, 有無不妨, 自越松登陸徑歸是如是遣, 水營關文據取招時, 謂以徐文億<sup>15</sup>, 閏四月初一日破船後, 偶逢越松萬戶搜船, 同騎而歸是如, 則此招內, 文億之歸, 在於已逢異舶之後, 彼招內, 文億之歸, 在於未逢異舶<sup>16</sup>之前, 何其兩招矛盾是旡, 以糧米言之, 報兵營招內, 以破船後, 只將糧米二十餘石<sup>17</sup>, 登岸結幕是如是遣, 報水營招內, 以爲統營發船時, 糧米三十石是如, 則一曰二十餘石, 一曰三十餘石者, 何其石數之相左是旡, 以船舶言之, 報兵營招內, 船中之人, 不知許名是如是遣, 報水營招內, 以爲船中人物, 不知幾十幾百是如, 而不知幾許云者, 全不知之言也, 幾十幾百云者, 假量未的之言也. 此何全不知, 彼何假量言之是旡, 小船體樣長廣, 汲水器何物, 報兵營招內, 永不提告, 有何委折是隱喻, 亦爲詳細枚告爲旡, 以衣服言之, 異類所着上衣, 報兵營<sup>18</sup>招內, 如我國衲襖是如是遣, 報水營招內, 如我國赤古伊是如, 則衲襖與赤古伊, 因何相左是旡, 以人物言之, 報兵營招內, 以爲汲水人八漢, 但赤黑白, 有若染色是如是遣, 報水營招內, 以爲兩漢深黑, 三漢粉白, 一漢黃, 兩漢赤是如, 則何其詳略不同是旡, 板書之粉上加墨, 誠不近理, 苟慮粉渝, 則何獨於板加墨, 而紙不加墨乎? 加墨云云, 決非的供, 無隱直告爲旡, 異類形色, 雖已細供, 而身長幾許, 胡無所告, 一從目覩爲旡, 鬱島造船, 大關法禁, 則汝矣之無難造出, 必有隱情是遣, 汝矣島中留連爲九十一日, 則異類之何處去留, 出沒動靜, 亦必目覩, 這間委折, 並只從實直告, 亦推問教是臥乎在亦’, ‘矣身於本四月初三日, 因統營分付, 與軍官徐文

15 文億 : 원문에는 億文으로 되어 있으나 文億으로 바로잡음.

16 원문에는 泊 차 다음에 未逢 두 자가 더 있으나, 잘못 끼여든 말이라고 생각되어 삭제하였음.

17 餘石 : 원문에는 石餘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교정표시에 따라 餘石으로 교정함.

18 兵營 : 원문에는 營兵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교정표시에 따라 兵營으로 교정함.

億同入鬱島，而同月二十八日到泊，閏四月初一日破船，而偶逢越松萬戶搜討船，文億段，載於該船而去，則文億之歸，果在於異船未逢之前是乎矣，頃於取招之日，荒迷不次，以逢異樣船歸路，文億自松徑歸樣納招是如可，疑復思惟，則所供誤措辭，更招於報水營中是乎矣，糧米段，統營發程之日，裝載三十石，而入島破船後，所剩不過爲二十餘石，故一曰三十石，一曰二十餘石者，果舉其當初所載與追後所剩之數是乎矣，異船中人數段，一曰幾百者，別無他意，幾十幾亦是不知幾許之語是乎矣，汲水異類之小船體製，頭尾窄尖，如梭子之樣，而長可爲三把，廣可爲二把是矣。此是矣身可量是乎矣，汲水器段，狀如皮負袋，而異類所着上衣段，一曰如我國赤古伊，一曰如國衲襖是如，一衣而各名是乎矣。以愚迷之見，衲襖則赤古伊也。所以一衣互招，而明是赤古伊是乎矣，汲水八漢段，兩漢深黑，三漢粉白，一漢黃，兩漢赤，果是目擊，前招中，赤黑白云者，乃是通舉而不是各提者是乎矣，板書之粉上加墨，實由於愚見之或慮粉渝，而至若片紙段，矣等問以何事出來，而書于片紙而示之，仍給紙筆墨，則彼們以矣身所給之筆，書于矣身所給之紙，則片紙書乃是墨書也。豈有日後或渝之慮，板上加墨，實出欲久之計是乎矣，汲水人身長段，或有稍長於矣身者，又有相同於矣身者，而矣身身長，俗稱以周尺六尺，則彼們身長，果是六七尺是乎矣，異類去留與出沒動靜段，彼們逢着矣等之日，自南而來，向南而去是加尼，過二日後，矣身斫木次，向東踰山而去，則頃日逢着之漢，汲水而去是乎矣。矣身立在層巖之上，見而指點而已是遣，良久立視，則彼們汲水後，載之小船，仍爲出海，而極東雲漢之際，有如山大船，是船必是前日退去之船也。載泉小船，向往大船處，而一自是處，再見之後，無論大小船，不知何處去向是乎矣，禁地造船事段，矣身破船之後，逢着越松搜討船，則二十八名船格與草苳糧米，豈不欲同載而歸哉。該萬戶托以船小難容，只載徐文億，而分付曰，‘汝矣等修葺已破之船，追後出來也’云，故矣身不得已留連造出是去乎。上項諸條，皆是實際，他無可供是遣，格軍金學連·金用達等，一一捉入，箇箇杖問，則所告內，以爲‘異類木板粉書，非徒一尙吉之所觀，矣等之俱爲參觀，而或慮粉渝而加墨，尙吉爲之’是遣，其他諸條，已悉於尙吉所招，更無可達是如爲有等以，

金尙吉·金學連·金用達等處, 逐條盤問取招牒報爲臥乎事, 道以叅商云云.

첩보합니다. 본군 두모포에 도착하여 정박한 창원 선주 김상길 등에 대한 전후 취조에 관한 것을 각 영에 보고한 내용 및 각 영문(營門)의 회제(回題)를 등사한 후 보고한 것에 대하여 병마절도사가 회송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히 심문할 것, 기유년 8월 6일, 창원 선주 김상길 나이 64세, 심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병영 관문(關文: 공문)에 의하면, 너의 납초(納招) 시에 서문역은 정탐한 후에 있으나 없으나 무방하므로 월송에서 육지에 올라 지름길로 돌아갔다고 하고, 수영 관문에 의하면 취초(取招) 시에 서문역이 윤4월 파선 후 우연히 월송만호 수토선을 만나 함께 타고 돌아갔다고 한즉, 이 공초 안에는 서문역이 돌아간 것이 이양선을 이미 만난 후라고 하고, 저 공초 안에서는 서문역이 돌아간 것이 이양선을 아직 만나기 전이라고 하니, 어찌 두 공초가 그렇게 모순되는가? 양미(糧米)로 말하면, 병영에 보고한 공초(供招) 안에서는 파선 후 단지 양미 20여 석을 가지고 해안에 올라 초막을 엮었다고 하였는데, 수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서는 통영에서 발선할 때 양미 30석이라고 하였으니, 한 번은 20여 석이라고 하고, 한 번은 30석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 석 수가 서로 차이가 나는가? 선박으로 말하면, 병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는, 수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서는 배 안의 사람들이 기십 기백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었는데,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기십 기백 운운한 것은 가량으로 적확하지 않은 말이다. 여기서는 어찌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저기서는 어찌 가량이라고 말하였는가? 작은 배의 생김새와 길이 및 너비, 급수기가 어떤 물건인지, 병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서는 끝까지 고하지 않았으니, 어떤 곡절인지 상세하게 낱낱이 고하라. 의복으로 말하면, 다른 부류들이 착용한 의상이 병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서는 우리나라 두루마기와 같다고 하고서는, 수영에 보고한 공초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저고리와 같다고 한즉, 두루마기와 저고리는 무엇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는가? 인물로 말하면, 병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는 급수인이 여덟 노인

데, 다만 적색, 흑색, 백색으로 마치 염색을 한 것 같다고 하고서는, 수영에 보고한 공초 안에서는 두 놈은 짙은 흑색, 세 놈은 분칠한 백색이며, 한 놈은 황색이며 두 놈은 적색인 즉, 어찌 상세하고 소략함이 같지 않는가? 판서의 분칠에 먹을 더한 것은 참으로 이치에 가깝지 않은데, 정말로 분칠이 열어질 것이라고 염려하였다면, 어찌 판에만 먹을 더하고, 종이에는 먹을 더하지 않았는가? 먹을 더했다고 운운한 것은 결코 정확한 공초가 아니니, 숨김없이 곧게 고하라. 이국 부류의 형색에 대해 비록 이미 자세하게 공초 하였더라도 신장이 얼마인지 어찌 고한 바가 없이 한결같이 눈대중에 따르는가? 울도에서 배를 건조한 것은 크게 범금(法禁)에 관계되는데 너희가 무난히 만들어 나온 것은 반드시 숨긴 사정이 있을 터이며, 네가 섬 안에서 머무른 것이 91일인즉 이국 부류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무르며 출몰 동정 또한 반드시 목도하였을 것이니, 저간의 곡절을 모두 사실대로 직접 고하도록 주문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월 3일 통영의 분부로 인하여 군관 서문억과 함께 울도에 들어가 동월 28일 도착하여 정박하고, 윤4월 1일 파선하였는데 우연히 월송만호 수도선을 만났습니다. 서문억은 그 배에 실려 갔으니, 서문억이 돌아간 것은 과연 이양선을 아직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지난번 취조하는 날에는 혼미하고 차서가 없어 이양선을 만나 귀로에 올라 서문억이 월송으로부터 지름길로 돌아간 것처럼 납초하였습니다만, 의심스러워 다시 생각해 보니, 공초한 바 잘못 말을 한 것이며, 수영에 보고하는 가운데 다시 공초를 하였습니다. 양미는 통영에서 일정을 출발한 날 30석을 포장하여 실었는데 입도하여 파선된 후 남은 것은 20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30석이라고 하고, 한 번은 20여 석이라고 한 것은 과연 그 애초에 실었던 것과 추후에 남은 수를 든 것입니다. 이양선 속의 사람 숫자는 한 번은 기백이라 하였는데 특별히 다른 뜻이 없고, 기십의 기(幾) 또한 얼마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을 끄는 이국 부류의 작은 배의 생김새는 머리와 꼬리가 좁고 뾰족하여 마치 벼들의 북 모양과 같고, 길이가 세 발이고 너비가 두 발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헤아린 것입니다. 급수기는 모양이 가죽부대와 같고, 이국 부류들이 착용한 상의는

한 번은 우리나라 저고리와 같다고 하고, 한 번은 우리나라 두루마기와 같다고 하였는데, 하나의 옷을 두고 각기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어리석고 흥미한 견해로는, 두루마기가 곧 저고리입니다. 하나의 옷을 가지고 상호 공초하였던 바이며, 명백히 저고리입니다. 물을 길는 여덟 놈은 두 놈이 짙은 흑색이고 세 놈은 분을 칠한 듯 백색이며, 한 놈은 황색이고 두 놈은 적색인바, 과연 목격한 것이며 앞 공초 가운데 적색, 흑색, 백색이라 일컫은 것은 통틀어 거론한 것이지 각각을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판서의 분칠 위에 먹을 더한 것은 실로 어리석은 소견으로, 흑 분칠이 열어질까 염려한 것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편지에 이르러서는 저희들이 무슨 일로 나왔냐고 묻자, 종이쪽지에 써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서 지필묵을 주자, 그들은 저희가 준 붓을 가지고 저희가 준 종이에 글을 썼으니, 편지의 글씨는 먹글씨였습니다. 어찌 훗날 탈색할까 염려하여 판 위에 먹을 덧칠한 것이겠습니까? 실로 오래가도록 할 요량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을 길는 사람의 신장은 저보다 조금 큰 사람도 있고 또 저와 서로 같은 사람도 있으니, 저의 신장은 속칭 주척(周尺)으로 6척이니, 그들의 신장은 과연 6, 7척입니다. 이국의 다른 부류들이 가고 머무르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정은 그들이 우리를 만났던 날 남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갔는데, 이들이 지난 후 저희가 나무를 베러 동쪽을 향해 산을 넘으니, 지난날 마주친 놈이 물을 길어갔습니다. 제가 층암 위에 서서 보면서 지점을 가르키며 꽤 오래 서서 바라보니, 그들은 물을 길은 후 조그만 배에 싣고서 곧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쪽 끝 구름 사이에 산처럼 큰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필시 전날 물러간 배입니다. 샘물을 실은 작은 배는 큰 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줄곧 이곳에서 두 차례 목격한 뒤에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어느 곳을 향해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금지에서 배를 만든 일은 저희가 파선 후에 월송만호 수토선을 만났으니, 28명 선격과 초둔, 양미를 어찌 함께 싣고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해당 만호는 배가 적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밀어내고, 단지 서문역만 싣고 분부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파선된 배를 수리하여 추후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부득이 머물면서 배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위의 여러 조항

은 모두 사실이며, 달리 공초할 것이 없었습니다. 격군 김학련, 김용달 등을 일일이 잡아들여 곤장으로 문책하니, 아뢰바 “이국 부류가 목판에 쓴 분서는 비단 김상길이 목도한 것일 뿐 아니라 저희들도 함께 참관하였습니다. 혹 분칠이 바랄까 염려하여 먹을 덧칠한 것은 김상길이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목은 이미 모두 김상길의 공초에 있으니, 다시 아뢰 될 것이 없습니다. 김상길, 김학련, 김용달 등 처에 항목별로 다시 심문하고 취초하여 첩보하오니, 아뢰 바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IV. 영좌병영 장계의 원문 및 번역문

去月十五日辰時到付, 興海郡守李鼎鎬馳報內, “本郡東上面豆毛浦里任手本內, ‘昌原府新江里金以方, 入鬱陵島, 新造船隻, 今初九日來泊本津是如’, 而鬱島係是禁地, 則自其處造船來泊, 極爲驚駭, 故發遣鄉色, 摘奸船樣及所載汁物, 則香木·草菴外, 有異國文蹟, 故捉入該船主金以方不喻金尙吉, 查問其入鬱島根因及所見如何, 則以爲‘今四月日, 自統營招致矣身分付, 以爲「見今異舶, 出沒非常, 莫知其何國人物, 何事往來. 聞方留住於鬱陵島, 汝其往鬱島偵探以來, 而如無異國物件之持來, 則偵探與否, 無以憑信, 期於持一件可信之物以來, 而汝不可獨任是役, 與軍官徐文億偕往亦分付」, 故矣身與徐文億, 率格軍二十八名, 同月初三日, 駕船直往鬱島, 而及其登陸後, 船艙不好, 所騎船隻, 仍爲破碎, 故果爲改造是遣, 島中留連之際, 或登山而瞭望異舶, 或臨津而搜探踪跡矣. 一日夕, 何許奇怪人七八箇, 汲水次來到, 形貌則赤黑白不齊, 衣服則赤黑白各異, 非倭非胡, 所見蹺蹊, 故心知其異國人, 延之就席, 書問以何國人何事來, 則渠以粉筆書木板以給, 而一字不知是遣. 矣身指口指腹, 示以飢餓之狀, 則渠矣出給一枚果一片餅, 故矣身執以爲異國信物. 仍爲回還之路, 到泊于平海郡越松津, 軍官徐文億, 自陸歸去, 矣等騎船出來, 而風濤不利, 到泊本郡豆毛津是如乙仍于’, 取見其所謂異國人木板所書, 則雲形鳥跡, 似篆似畫, 想是該國方書,

而莫辨何字是乎旃, 搜探統營公文, 則答以爲‘徐文億持去’是如是乎所, 所持者乃是異國筆蹟, 搜覓而未有公文眞的, 則事係慎重, 有不可憑渠口傳而擅自放送乙仍于, 昌原船主金尙吉及船格二十八名, 姑不放送, 船隻亦爲繫留後, 船人姓名, 異國物件, 船隻把數, 修成冊馳報亦爲白有置.”

지난 달[7월] 15일[양력 9월 1일] 진시(辰時)에 흥해군수(興海郡守) 이정호(李鼎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급보가 도착되었습니다. “흥해군 동상면 두모포(豆毛浦) 마을 임원의 보고서에, ‘창원부 신강리의 김이방(金以方)이 울릉도에 들어가 새로 선척을 만들고, 이번[7월] 9일에 본 진(津)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울릉도는 금지(禁地)인데, 그곳에서 배를 만들어 와서 정박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향색(鄕色)을 보내 배의 모양 및 신고 있는 집기를 조사해 보니, 향목(香木)과 초둔(草菴) 외에 다른 나라의 문적(文蹟)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선주(船主)인 김이방뿐만 아니라 김상길(金尙吉)을 잡아들여 울릉도에 들어간 원인 및 본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물으니, ‘이번 4월에 통영(統營)에서 저를 불러들여 분부하기를, 「오늘날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로 오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들으니, 지금 울릉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 네가 울릉도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 만일 외국의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정탐한 것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믿을 만한 물건 한 가지를 가져오도록 하라. 그리고 네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군관 서문억(徐文億)과 함께 가거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문억과 함께 격군(格軍) 28명을 거느리고 같은 달[4월] 3일[양력 4월 25일]에 배를 타고 곧바로 울릉도로 갔습니다. 육지에 오른 후에 선창(船艙)이 좋지 않아 타고 있던 선척이 그대로 부서졌으므로 과연 고쳐 만들었습니다. 섬 안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멀리 이양선을 망보거나 나루에 가서 종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떤 기괴한 사람 7, 8명이 물을 길기 위해 왔습니다. 얼굴은 붉은색, 검은색, 흰색이 섞여 있었고, 의복 또한 붉은색, 검은색, 흰색으로 각기 달랐는데, 왜(倭)도 아니고 호(胡)도 아니었으며 괴이

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외국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리서 자리에 앉게 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를 글로 물어보니, 그는 분필로 나무 판에 써서 주었는데,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과 배를 가리켜 배고픈 모양을 보이니, 그가 과일 하나와 떡 한 조각을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글씨를 쓴 나무판을 외국의 신물(信物)로서 가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평해군의 월송진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군관 서문역이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바람과 파도가 좋지 않아 이 흥해군의 두모포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른바 외국 사람이 목판에 쓴 글을 보니, 구름 모양이나 새 발자국 같았으며 [雲形鳥跡], 전서(篆書)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방서(方書)이기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영의 공문(公文)을 찾으니, '서문역이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닌 것은 바로 외국의 필적이요, 찾아보았지만 공문의 진본은 없었습니다. 일이 신중히 해야 하는 데 관계된 것이고 그가 말로 전하는 것에 믿을 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마음대로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창원의 선주 김상길 및 격군 28명은 아직 풀어주지 않고 선척도 묶어서 머무르게 한 후, 뱃사람의 성명, 외국 의 물건, 선척의 발(把) 수 등을 책자로 만들어 신속히 보고합니다.”

海民之憑藉入島, 有難準信, 異舶之留住事情, 在所詳問, 而所招終涉糶糊, 邑報未免疎略乙仍于, 更爲嚴覈取招報來之意, 題飭是白加尼, 同月二十三日巳時到付同郡守馳報內, “昌原船主金尙吉等, 入鬱島逢着異樣人事實, 更爲嚴問取招是乎, 則所告內, ‘矣身素以左沿行商之致, 熟問海路是如, 今四月日, 自統營使矣身入鬱島探異舶之狀, 已悉前招是在果, 同月初三日發船, 二十八日到鬱島, 泊船淺灘, 則險巖瘴濤, 發作無常. 閏四月初一日, 船隻仍爲破碎, 衣服等物, 俱失水中, 只將所餘糧米二十餘石, 等岸結幕, 斫木造船之際, 異舶去就, 期欲偵探, 或登高而瞭望, 或臨津而遠候矣, 閏四月初六日夕, 如山大船, 直向鬱島, 而有一葉小艇前導是如可, 見矣等之在島, 自大船上揮動紅旗, 仍卽退去, 前導小艇, 來泊于近島淺灘, 而七八

怪鬼輩，徒跣步水，下衣則有若裨襠，貼肉緊束，小無間隙，狀類直杖，而足穿淨襪，又穿皮鞋，而鞋樣則與我國無異是乎矣，但前面以皮合縫，上衣則與我國赤古里無異，而其色則青黃黑白不一是乎所，毋論上下衣裳，袖與緞間，莫知其名是遣，頭髮髭鬚，削盡無餘，而頭上以名不知毛物抹額是乎旃，及其登岸後，與矣等相對而立，彼此驚疑，互相默默是如可，矣身強爲伸腰偃蹇，携一小方席，呼之曰，「公等請坐」，彼們張目鼓頰，有若咆喝，故矣身意其責以草率，入幕鋪席後，復曰，「公等坐坐」，彼們始爲入幕坐定，而面貌耳目，與我國一樣人物是乎矣，但赤黑白，有若染色，明是異類，故矣身書問曰，「何國居生乎？」，彼們以粉筆書木板以給，而非畫非篆，一字不知是遣，又問以何幹而來，則鼓頰縮口爲噴水之狀，而以愚意揣之，噴水之物，鯨魚是已，或料獵鯨之人是隱喻，亦未能的知是乎旃，矣等指口指腹，佯作餓狀，則彼們自袖中出給一箇餅一箇果，故果爲受置，彼們各持烟茶竹，而製作則如我國所謂土造臺是乎所，一箇竹下體折傷，故矣等懇請給我，則投之地，許我拾取乙仍于，並與板書餅果，而深藏緊裹，以憑日後統營標證是乎旃，彼們對坐良久，顧其同伴曰，「去矣」，而聲音與我人無異，矣等試撫其頭，則曰，「勿阿」，而聲音亦同是乎矣，一自歸後，更不入來，日後汲泉，改路于越谷是乎旃，頃者退去大船，長可四十餘把，廣可二十餘把，而中建四帆，帆布上下，兩端青緣，而中則色白，前後左右，又掛小帆四箇，而上下青，中央白，與大帆同是遣，船中人不知幾許名，而追之末由，問之無路，所聞所見，如斯而已，矣等七月初一日，自鬱島發船還歸’是如乙仍于，新造船汁物，郡守躬往反閱是乎矣，香木·草苳·糧米·破船木板外，更無一毫可執，故船汁搜驗成冊，更爲修上爲乎旃，統營搜討公文段，軍官徐文億，自越松亭登陸歸去之路，已爲持去是如，故盤問徐文億徑歸之由，則以爲‘文億非徒不嫻水路，既已偵探，歸路有無不妨，故果爲登陸而去是如乙仍于’，公文不爲搜覓爲乎旃，自本郡報統營回題內，‘因異樣船搜討，果有此事，諸漢並放送事’是乎等以，同題音粘後，牒報亦爲白有置，”

바닷가의 백성들이 섬에 들어간 것에 대한 핑계를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

움이 있습니다. 이양선이 머무르고 있는 사정은 상세히 묻은 바에 달려 있는데 진술한 바가 끝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고을의 보고가 소략함을 면치 못하였기에 다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보고하라는 뜻으로 명령을 내려 신칙하였더니, 같은 달[7월] 23일 사시(巳時)에 흥해군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급보가 도착되었습니다. “창원의 선주 김상길 등이 울릉도에 들어가 이양인(異樣人)을 만난 사실을 다시 엄히 물어 진술을 받았습니다. 고하기를, ‘저는 본래 경상좌도의 연해에서 행상을 하는 까닭에 바닷길을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이번 4월에 통영에서 저에게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양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했음은 이미 전의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달 [4월] 3일에 배를 출발하여 28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여 여울에 배를 정박했더니, 험한 바위에 사나운 파도가 심하게 일어서 윤4월 1일에 배가 그대로 부서졌고, 의복 등의 물건은 모두 물속에 잃어버렸으며, 다만 남은 것은 양식으로 쓸 쌀 20여 석뿐이었습니다. 언덕에 올라 천막을 치고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 때, 이양선의 거취를 반드시 정탐하려고 높이 올라가 멀리 망을 보거나 나무에 가서 멀리 살피거나 하였습니다. 윤4월 6일[양력 49년 5월 27일] 저녁에, 산처럼 큰 선박이 곧장 울릉도를 향해 왔는데, 작은 배 하나가 앞길을 인도하고 있다가 섬에 있는 저희들을 보았습니다. 큰 배 위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바로 물러갔습니다. 앞길을 인도하던 작은 배는 섬 가까이 여울에 정박했는데, 7, 8명의 괴상한 무리가 맨발로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하의는 속옷 바지[裈袴] 같은 것을 살에 붙여 묶어 조금도 틈이 없어서 곧은 지팡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발에는 깨끗한 버선을 신고 다시 가죽신을 신었는데, 신의 모양은 우리나라와 다름이 없었으나 다만 앞면을 가죽으로 봉합했습니다. 상의는 우리나라 저고리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 색은 청색, 황색, 흑색, 백색으로 여러 가지였습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의상은 명주와 비단 사이였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두발과 수염은 남김없이 다 깎았고, 머리 위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물(毛物)을 이마에 동여맸습니다. 언덕에 오른 후 저희들과 서로 마주보고 섰는데, 피차 놀라고 의심하며 서로 묵묵히 있다가, 제가 깨끗하게 허리를 펴고 거만하게 작은 방석 하나를 가져

와 부르며, 「공(公)들은 앉으십시오。」라고 하자, 저들은 눈을 부릅뜨고 뺨을 두드리며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략한 것을 책한다고 생각하여 천막에 들어가 자리를 편 후, 다시 「공들은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저들이 비로소 천막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얼굴과 이목구비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적색, 흑색, 백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았으니, 분명 이국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묻기를,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자, 저들은 분필로 나무판에 써서 주었는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전서인 것 같기도 하였으며 한 글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 묻자, 뺨을 두드리고 입을 오므리며 물을 뱉은 모양을 지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미루어보건대, 물을 뱉는 것은 고래이니, 혹 고래를 잡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입과 배를 가리키며 배고픈 모양을 짓자, 저들이 소매 속에서 딱 한 개와 과일 한 개를 내어 주었으므로, 반아서 두었습니다. 저들은 각각 담뱃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양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민간에서 만든 대와 같았습니다. 대 하나는 아랫부분이 부러졌기에 저희들이 달라고 간청하니, 땅에 던지고 우리가 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판에 글씨를 쓴 것을 떡과 과일과 함께 깊이 넣고 단단하게 싸서 나중에 통영에서 증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마주앉아 한참을 있다가 그 동료를 돌아보고 「거의(去矣)」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 삼아 그 머리를 어루만지자, 「물아(勿阿)」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역시 같았습니다. 한번 돌아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샘의 물을 기르는 것은 월곡(越谷)으로 길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 물러났던 큰 선박은, 길이가 40여 발(竿)에, 너비가 20여 발이고, 가운데 네 개의 돛을 세웠습니다. 돛천(帆布)은 위아래 양쪽 가선을 파란색으로 둘렀으며 가운데는 흰색이었고, 전후좌우에는 작은 돛 4개를 걸었는데 위아래는 파란색, 중앙은 흰색으로, 큰 선박과 같았습니다. 배 안의 사람은 몇 명인지 몰랐지만, 추격하여 물어볼 길이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바는 이와 같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7월 1일에 울릉도에서 배를 출발하여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배와 집기는 군수인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조사하였는데, 향목(香木), 초둔(草屯), 쌀, 파손된 배의 목판 외에는 조금도 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의 짐기들을 수색하여 검사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통영에서 수토(搜討)를 지시한 공문(公文)은 군관 서문억(徐文億)이 월송정에서 육로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을 때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억이 먼저 돌아간 연유를 캐어물었더니, ‘서문억은 물길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탐을 마쳤으니, 돌아가는 길에는 그가 없어도 무방했으므로 육로로 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본군[홍해군]에서 통영에 보고한 것에 대한 통영의 회답에, ‘이양선을 수토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러 놈들을 모두 풀어 주어라’라고 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끝에 덧붙여서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異舶偵探, 何等審慎, 而既見其船, 更無追後探踪, 且見其人, 不爲詳告衣形者, 實涉疑眩是白岔除良, 禁島之久留造船, 亦所詳覈乙仍于, 更爲題飭該邑, 使之查報是白加尼, 今月初八日巳時到付同郡守馳報內, “金尙吉等處, 更爲查問是乎, 則所告內, 矣等四月初三日, 因統營分付, 與軍官徐文億同入鬱島, 而同月二十八日到泊, 閏四月初一日破船, 偶逢越松萬戶搜討歸船, 文億段, 初二日同載於該船而出來, 則文億之歸, 果在於異舶未逢之前是乎矣. 前招中精神迷亂, 誤以逢異舶歸路, 文億自越松經歸樣納招, 故今復思惟, 有此更告是乎旴, 異樣大船段, 只望其外, 不見其內, 人數幾許, 無以知得, 汲水小船段, 頭尾窄尖, 如梭子樣, 而假量長爲三把, 廣爲二把是乎旴, 汲水器段, 狀如皮負帛, 而汲水八漢面色段, 兩漢深黑, 三漢粉白, 一漢黃, 兩漢赤, 身長六七尺是乎旴, 矣等問以何事出來, 而書于片紙而示之, 仍給紙筆墨, 則彼們以矣等所給之筆, 書于矣等所給之紙, 則片紙異樣書, 乃是墨書, 而至於板上書, 則粉劃不無或渝之慮, 故金尙吉矣身, 手自加墨於粉劃上, 欲爲日久標證是乎旴, 彼們逢着矣等之日, 自南而來, 向南而去, 過二日後, 矣等斫木次, 向東踰山而去, 則頃日逢着之漢, 汲水而去是去乙, 矣等立在層巖之上, 良久指點, 則彼們汲水後, 載之小船, 仍爲出海, 而極東雲

海之際, 有如山大船, 意必是前日退去之船也. 汲水小船, 向往大船處, 而一自是處再見之後, 無論大小船, 不知何處去向是乎旃, 禁地造船事段, 矣等破船之後, 逢着越松萬戶搜討船, 則二十八名船格與草苴糧米, 豈不欲同載而歸哉. 該萬戶託以船小難容, 只載徐文億而分付曰, “汝等修葺已破之船, 追後出來亦云”, 故矣等不得已留連造出是如是乎旃, 格軍等一一捉入查問, 一辭同然, 是如牒呈是白置有亦”, 今此金尙吉之入島, 旣因統營送探, 而異類相逢, 適在一夕, 則三朔禁島之留, 何其支離, 船隻新造, 若因破碎, 則萬戶順歸之船, 胡不同載是白乎喻, 揆以常情, 殆不近理是白岔除良, 同去徐文億之去就, 旣云自越松分路, 又曰自島中徑歸者, 亦涉眩亂, 質問究竟, 在所不已, 而差送旣在統營, 文億亦還本土乙仍于, 待新統制使臣柳基常下來, 並爲嚴加查問之意, 移文計料爲白乎旃, 第以其招觀之, 異樣大船, 雖未追躡, 小艇水手, 促席相對, 言語文字, 莫辨其何國居生, 而衣製形貌, 概知其遠域人物是白如乎, 春間異船之自南向北者, 現沒無常, 則此亦彼船之經過海島者是白加隱喻, 嗣後瞭探執詰之節, 有不可以日久而暫弛, 故另加嚴飭於沿海各邑爲白有在果, 所謂異樣人書字, 板紙書劃, 俱係莫辨, 粉上加墨, 亦爲失真, 而旣發民招, 現納公庭是白乎等以, 同金尙吉船中汁物, 異國書物數爻, 依邑報修成冊上送于備邊司爲白乎旃, 屢度題飭查報之際, 修啓日子, 自爾遲滯, 不勝悚惶,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云云.

己酉八月初九日.

이양선을 정탐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양선을 보고 나서 다시 추후에 흔적을 정탐하지 않았고, 외국인을 만났는데 의복과 모습 등을 상세하게 고하지 않았으니, 실로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지된 섬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배를 만든 것 또한 상세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당해 고을에 명령을 내리면서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더니, 이달<sup>8월</sup> 8일 사시(巳時)에 흥해군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급보가 도착되었습니다. “김상길 등에게 다시 조사하여 물으니, 고하기를, ‘저희들은 4월 3일 통영의 분부로 인하여 군관 서문역과 함께

울릉도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28일에 도착하여 정박했고, 윤4월 1일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우연히 월송만호가 수도하고 돌아가는 배를 만나서, 서문역은 2일에 그 배에 함께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한즉, 서문역이 돌아간 것은 과연 이양선을 만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앞서 진술한 것 중에는 정신이 어지러워서 이양선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서문역이 월송에서 먼저 돌아갔다는 식으로 잘못 진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생각해 보고 이렇게 다시 고하는 것입니다. 이양선 가운데 큰 배는 바깥만을 바라보고 그 안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을 끄는 작은 배는 머리와 꼬리가 좁고 뾰족하며 배틀의 북과 같은 모양이었는데, 어렵짐 작으로 길이는 3발(把), 너비는 2발이 되었습니다. 물을 끄는 그릇은 모양이 가죽 부대와 같았습니다. 물을 끄는 여덟 놈의 얼굴색은, 두 놈은 짙은 검은색, 세 놈은 분처럼 하얀색, 한 놈은 누런색, 두 놈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신장은 6, 7척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으며 조각난 종이에 써서 보여 주고 나서 종이, 붓, 먹을 주었는데, 저들은 저희들이 준 붓으로 저희들이 준 종이에 썼으니, 종이의 이상한 모양의 글씨는 바로 먹으로 쓴 것입니다. 판 위의 글씨의 경우에는 분으로 쓴 획이 바깥 염려가 있었으므로 김상길이 직접 분으로 쓴 획 위에 먹으로 덧칠해서, 나중에 증표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저들이 저희들을 만난 날은 남쪽으로부터 왔다가 남쪽을 향해 갔는데, 이를 뒤에 저희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 동쪽을 향해 산을 넘어 가니 지난번에 만났던 놈이 물을 길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층진 바위 위에 서서 오랫동안 가리키고 있었는데 저들은 물을 길은 후 작은 배에 타고 그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쪽 끝 아득히 구름이 덮인 바다에서 산처럼 큰 배가 있었는데, 전에 물러간 배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끄는 작은 배는 큰 배가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곳에서 다시 본 후에는 큰 배와 작은 배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지된 땅에서 배를 만든 일은, 배가 파손된 후 월송만호의 수도하는 배를 만난 저희들이 어찌 28명의 격군 및 초둔(草屯)과 쌀을 함께 싣고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월송만호는 배가 작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서문억만 실었으며, 분부하기를, 「너희들은 파손된 배를 수리하여 나중에 나오거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머무르면서 배를 만들어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격군 등을 일일이 잡아들여 조사해 물어보았는데, 모두 말이 같았습니다.” 이번엔 김상길의 섬에 들어간 것은 통영에서 정탐하라고 보냈기 때문이지만 이양인을 만난 것은 마침 하루 저녁에 있었으니, 석 달을 금지된 섬에서 머문 것은 너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선척을 새로 만든 것은 파손된 것으로 인한 것이지만 월송만호가 돌아가는 배에 어찌 함께 타지 않은 것인지, 상식으로 헤아려보면 너무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간 서문억의 거취를 월송에서 헤어졌다고 했다가 다시 섬 안에서 먼저 돌아갔다고 한 것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끝까지 질문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데, 사람을 뽑아서 보낸 일이 이미 통영에서 있었고, 서문억 또한 본토(本土)에 돌아왔으니, 새 통제사 신(臣) 유기상(柳基常)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모두 엄하게 추가로 조사하여 물으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그 진술로 보면, 이양선 중 큰 배는 추격하지 못했지만 작은 배의 선원은 자리에서 마주하였으며, 말과 글로 어느 나라에 사는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의복과 모습으로 먼 곳의 사람임은 대강 알았습니다. 봄에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하는 이양선의 출몰이 심상치 않습니다. 차후로 저런 배가 또 바다의 섬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후로 망보고 정탐하며 체포해서 묻는 일은 시일이 오래되어도 잠시도 느슨하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연해의 각 고을에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이른바 이양인의 글씨는 판과 종이에 쓴 획은 모두 판별하지 못했고 분위에 먹으로 더한 것 역시 본 모습을 잃었는데, 이미 백성의 진술에 나왔고 공정(公庭)에 제출하였으므로, 김상길의 배 안의 짐가와 외국 서물(書物)의 수효를 고을의 보고에 의거하여 책자로 만들어 비변사에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명령문으로 신칙하고 조사하여 보고하는 사이에 보고를 작성하는 날짜가 저절로 지체되었으니, 황송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급히 보고합니다. 운운.

기유년(1849, 철종 즉위년) 8월 9일.

### V. 흥해군 첩보의 원자료 모습<sup>19</sup>

定之 教郡守情地不其可悶乎所謂軍錢結歛萬  
 萬可駭而已自戊戌為始報 營施行便成邑例則如  
 非大查正萬無區處所以因循行之而所入既夥結  
 價自高弊局拙手只自咄嘆而已是乎祿該邑段  
 一并嚴囚待忌辰過後嚴刑取招為計為乎祿前  
 後事狀據實仰報為去乎 道以參商云云  
 為鏢報事 即接本郡東上面豆毛浦里任手報均  
 昌原府新江里居金以方入鬱島新造船隻來泊本  
 津是而如鬱島係是禁地則有鬱島造船來泊極為驚  
 駭故發遣鄉邑摘奸艇樣及所載汁物則香本草花

19 출처 : 타임캡슐박물관(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 재단에서 박물관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임.

外有異國文蹟故捉入該船主金以方不喻金尙  
吉查其入鬱島根因及所見如何則以為今四月日  
統使道主招入矣身分付以為見今異船出沒非常  
而莫知其何國人物何事往來聞方留注於鬱島  
等地汝其往鬱島偵探以來而如無異國物件之持來  
則汝之偵探與否無以憑信期於持一件可信之物以  
來也然而汝不可獨任是役與軍徐文億偕往也如是  
分付教是故矣身與徐文億率格軍二十八名同月初三  
日駕船直往鬱島而其登陸後船艙不好所騎之船  
仍為破碎故果為改造船隻而島中留連之際或登

武

山而瞭望異船或臨津而搜探踪跡是加<sup>加</sup>尼一日夕何  
許七長七短鬼<sup>二</sup>崇<sup>二</sup>之人七八箇汲水次來到<sup>形</sup>矧貌則  
赤黑白不齊衣服則赤黑白各異非倭非胡所見蹠  
蹠故心知其異國人迺之就席書問以何國人何事來  
則渠以粉筆書木板以給而一字不知是遣矣身指口指  
腹示以飢餓之狀則渠笑出給一枚果一片餅故矣身執  
以為異國信物仍為回還之路到泊于平海郡越松軍官  
徐文億自陸歸去矣等騎船出去而風濤不利到泊于  
本郡豆毛津是如乙仍于所見其形謂異國人木板所書  
則雲形鳥跡似篆似畫想是該國方書而莫辨何字

是乎跡搜覓統營搜討公文則答以爲徐億文持去矣身  
處一無所持是如是非乎統營何等體重則尚古必無假托  
之理而所持者乃是異國筆跡搜覓而未有公文真的則事  
係重慎有不可憑渠口傳而擅自放送乙仍于昌原船主金  
尚吉船格二十人名姑不放送使該洞頭民著實供饋船隻  
置亦爲繫留後船人姓名異國物件船隻把數修成冊錄報  
爲去乎道以參商云云  
爲牒報事鬱陵島造船船主金尚吉等船載物件船格  
姓名成冊修報使回送及秘開內乙用良具格盤問次已酉  
七月二十二日鬱陵島造船船主金尚吉年六十四問目白等汝

美等二十八名自統營何日發船何日到鬱陵島何日破船留連  
幾日造船後何日發船何日到平海郡是孫當初自統營發船時  
船中所載何物徐文億自越松因何歸去在於何日異國人物何日  
逢著人數幾許是孫旣云汲水則來自何方去於何方汲水  
器何樣器物是孫人物段頭髮面髻身長鼻眼何如是孫衣  
服段頭着足着及上下衣樣製何以件染以何色汲水船大小何  
如汲水外更無他船是隱喻一從所見所聞從實直告亦盤  
問教是乎即所在亦矣身因統使道分付向往鬱島改本四月  
初三日發行因月二十八日到泊是如可閏四月初一日為風濤所泊  
仍為破船留連該島改造船隻而自本四月二十八日至七月初一

日留連日字合為九十月是乎於矣身既以異艦偵探入島故留連  
 之際或登高瞭望或臨津遠候矣閏四月初六日如大船直向鬱  
 島而先駕一葉小艇使之前導是可見矣等之在島有大艇上揮  
 動紅旗仍為退去而大艇上中連四帆帆布上下兩端青綠而中則  
 色白前後左右又掛小帆四箇上下青中央白與大艇同而艇之廣  
 可為二十餘把長可半餘把以其仍即退去之致長廣俱為假  
 量而艇中人物不知幾十幾百是乎於前導之小艇體制頭尾  
 窠尖如梭子樣而泊于該島淺灘惟鬼輩八人各持汲水器器  
 樣如皮負袋自南入來徒跣步水上衣則如我國赤古伊而稍長  
 袖樣稍廣頭上以甚麼毛物抹額下衣則如我國袴子而下段貼

由緊束小無間隙狀類麵杖之直立足穿淨襪又穿皮  
鞋而襪與鞋與我國一様而但鞋則以尖合縫前面是遣  
母論上下衣以青紅黑白染色而細與緞間莫知其名  
是乎祢人形段頭髮髭鬚削盡無餘身長六七尺不  
齊耳目口鼻如我國人而顏貌則兩漢深黑二漢粉白  
一漢黃兩漢赤有若染色明是異類及其登岸後與矣  
等相對而立彼此敬焉疑是如可矣身強為托大推乃小  
方席呼之曰公等請坐彼們張目戲頰有若吃唱故矣  
身意其責以草率入幕鋪席後復曰公等坐坐彼們  
始為入幕坐定故矣身書問曰何國居生乎彼們以粉

筆書木板以給而非簾盡非篆一字不知是遣又問以何幹  
而來則叩頰縮口為噴水之狀而以愚意揣之噴水之物鯨  
魚是已或料獵鯨之人是隱喻亦未能的知是乎旅矣等  
指口指腹作佯餓狀則役們自袖出給箇餅一箇果故果  
為受置彼們各持烟恭竹而製作則如我國所謂土造臺  
是乎耶箇竹下體折傷故矣等懇請給我則役們投  
地詐我拾取仍于并與書板餅果而深藏緊束以憑日後  
統營標證是乎旅役們對坐良久願其同伴曰去矣而聲  
音與我國人無異矣等誠撫其頭則曰勿阿而聲音同亦  
是乎矣一自歸後不復入來日後汲泉改道于越谷而此

亦自南來自北去是乎徐文億自陸歸去事段前日取  
招時荒迷不次以行到越松歸去據納供矣今復思惟則  
閏四月初日破船後偶逢搜討入來之越松萬戶同騎該  
船先自歸去矣茅自鬱島出來初不到泊于平海越松是乎  
徐統營發程時船中所載之物不過糧米三十石是如也仍  
于今尚吉處具格盤問後仍為蔽因為乎徐木板及尾紙  
書堅封上使是在果尚吉等所告內此是矣茅入島逢異  
船信物統營往現之日以此為證是如則鑑下後還為下送  
何如為乎徐搜討公文段文億歸去之日以為持去是如向  
牢拒愚蠢船民等莫念所重之在蔽任他文億之持

去似出真情是乎旅舉行該吏指報報而本郡以不聞邊  
情之致所報殆<sup>涉</sup>踈畧果有該吏指報之舉不勝惶悚是乎  
旅報牒稽滯事段邊報何等慎重而初十日所報十七日始  
呈萬二駭惋持者漢雖有中路得病之供而其在重邊報之地  
不可仍置故自本郡為先嚴徵為乎旅緣由并以牒報為計  
乎事

為牒報事本郡豆毛浦到泊昌原船主金尚吉等前後  
取招各營報辭及各營門回題謄後報使回送內乙用  
良嚴問次已酉八月初六日昌原船主金尚吉年六十四  
問目白等兵營閔文據汝矣納招時謂以徐文億於

偵探之後有無不妨自越松登陸徑歸是如是遣水營開文  
據取招時謂以徐億文閏四月初一日破艇後偶逢越松萬戶  
搜艇同騎而歸是如則此招內文億之歸在於已逢異舶之後  
彼招內文億之歸在於未逢異舶未逢之前何其兩招矛盾  
是祿以糧米言之報兵營招內以破艇後只將糧米二十石餘登  
岸結幕是如是遣報水營招內以為統營發艇時糧米三十石  
是如則曰二十餘石曰三十餘石者何其石數之相反是祿以舶  
艇言之報兵營招內艇中之人不知許名是如是遣報水營  
招內以為艇中人物不知幾十幾百是如而不知幾許云者全  
不知之言也幾十幾百云者假量未的之言也此何全不知彼

何倣量言之是於小艇體樣長廣汲水罌何物報兵營招內  
永不提告有何委折是憑喻亦為詳細報告為於以衣服言  
之異類所着上衣報營兵招內如我國衲襖是如是遣報水  
營招內如我國赤古伊是如則衲襖與赤古伊因何相左是於  
以人物言之報兵營招內以為汲水人八漢但赤黑白有各染色是  
如是遣報水營招內以為兩漢深黑三漢粉白一漢黃兩漢亦是  
如則何其詳畧不同是於報書之粉上加墨誠不近理苟慮粉  
渝則何獨於板加墨而紙不加墨乎加墨云云決非的然無隱直  
告為於異類形色雖已細供而身長幾許胡無所告從  
目覩為於驚異造般大闕法禁則汝矣之無難造出必有

隱情是遣汝矣島中留連為九十一日則異類之何處去  
留出沒動靜亦必目覩這間委折並只從實直告亦  
推問教是卧乎在亦矣身於本四月初三日因統營分付  
與事官徐文億同入鬱島而同月十八日到泊閏四月初  
一日破船而偶逢越松萬戶搜討船文億段載於該船  
而去則文億之歸果在於異船未達之前是乎矣蹟於  
取招之日荒迷不次以逢異樣船歸路文億有松徑敢樣納招是如可旋  
復思惟則所供誤措辭更招於報水營中是乎殫糧米段統營  
發程之日裝載三十石而入島破船後所剩不過為二十餘石故  
一日三十石一日二十餘石者果準其當初所載與進後所剩

之數是乎殊異船中人穀段一曰幾百者別無他意幾十幾亦是  
不知幾許之語是乎殊汲水異類之小船體製頭尾窄尖如梭子  
之樣而長可為三把廣可為二把是矣此是矣身可量是乎殊汲  
水器段狀如皮負袋而異類所着上衣段一曰如我國赤古伊一曰如  
國袖襖是如一衣而各名是乎矣以愚迷之見袖襖即赤古伊也所  
以衣互招而明是赤古伊是乎殊汲水八漢段兩漢深黑三漢粉白  
一漢黃兩漢赤果是目擊前招中赤黑白云者乃是通舉而不  
是各提者是乎殊板書之粉上加墨實由於愚見之或慮粉渝而  
至若片紙段矣等問以何事出來而書于片紙而示之仍給紙筆  
墨則彼們以矣身所給之筆書于矣身所給之紙則片紙書乃是

墨書也豈有日後或渝之慮板上加墨實出欲久之計  
是乎祿汲水人身長段或有稍長於身者又有相  
同於身者而身身長俗稱以周尺六尺則彼們身  
長果是六七尺是乎祿異類去留與出沒動靜段彼  
們逢著矣等之日自南而東向南而去是加尼過二日後後  
矣身斫木次向東踰山而去則頃日逢著之漢汲水而  
去是乎矣身立在層巖之上見而指點而已是遣良  
久立視則彼們汲水後載之小船仍為出海而極東雲漢  
之際有如山大船是船必是前日退去之船也載泉小船  
向往大船處而一自是處再見之後無論大小船不知何

處去向是乎孫禁地造船事段矣身破船之後逢着越松搜  
討船則二十八名船格與草菴糧米豈不欲同載而散哉該萬  
戶托以船小難容只載徐文億而分付曰汝矣等修葺已破  
之船追後出來也云故矣身不得已留連造出是去乎上項  
諸條皆是實際他無可供是遣格軍金學子連金用達等  
一捉入箇之杖問則所告內以為異類木板粉書非徒一尚吉  
之所觀矣等之俱為忝觀而或慮粉渝而加黑土尚吉為豈  
遣其他諸條已悉於尚吉所招更無可達是如為有等以金高  
吉金學子連金用達等處逐條盤問取招牒報為卧乎事  
道以忝尚云云

## VI. 영죄병영 장계의 원자료 모습<sup>1)</sup>



1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 이미지를 출력하여 스캔한 것임.

往鬱島而其登陸後船艙不好時騎船隻仍為破碎故果為改造是  
遣島中留連之際或登出而瞭望異舶或臨津而搜探踪跡矣且何  
許奇怪人七八箇汲水次來到形貌則赤黑白不齊衣服則赤黑白各異  
非倭非胡所見踈蹊慈心知其異國人迨之就席書問以何國人何事未  
則渠以粉筆書木板以給而守不知是遣矣身指口指腹示以飢餓之  
狀則渠笑出給殺果片餅故矣身執以為異國信物仍為回還之路到泊  
于平海郡越松津軍官徐文億自陸歸去矣等騎船出來而風濤不  
利到泊本郡巨毛津是知乙仍于取見其所謂異國入木板所書則雲形鳥  
跡似篆似畫想是該國方書而莫辨何字是乎徐搜探統營公文則  
答以為徐文億持去是知是等所貯持者乃是異國筆蹟搜覓而未公有真  
的則事係慎重不可憑渠口傳而擅自放送乙仍于昌原船主金萬吉  
及船格于八名姑不放送船隻亦為繫留後船人姓名異國物件船隻  
把數修成冊馳報亦為自有置海民一憑藉八島有難准信異舶之留往

事情在所詳問而所招終涉糶糊邑報未免踈畧乙仍于更為嚴覈取招  
 報來之意題飭是白加尼同月于言已時到付同郡守馳報內昌原船主金堂言  
 等入鬱島逢着異樣人事實更為嚴問取招是乎則所當內查素以左  
 沿行商之致熟暱海路是如今四月日自統營使矣身入鬱島探異船之狀已  
 悉前招是在某同月初三日發船三日自到鬱島泊船淺灘則險巖嶂濤發  
 作無常閏四月初日船隻仍為破碎衣服等物俱失水中只將所餘糧米二  
 十餘石登岸結幕斫木造船之際異船去就期欲偵探或登高而瞭望或  
 臨津而遠候矣閏四月初六夕如出大船直向鬱島而有葉小艇前導是  
 如奇見矣等之在島自大船上揮動紅旗仍即退去前導小艇來泊于近島  
 淺灘而七怪鬼軍徒跣赤下水衣則有若袂襠貼肉緊束小無間隙狀類直  
 杖而是穿淨襪又穿皮鞋而鞋樣則與我國無異是乎矣但前面以皮合縫上  
 衣則與我國赤古里無異而其色則青黃黑白不是乎所毋論上下衣裳  
 紬與緞間莫知其名是遺頭髮鬚鬚削盡無餘而頭上以名不知毛

物抹額是乎旆及其登岸後與矣等相對而立彼此驚疑互相點點是  
 如可矣身強為伸腰偃蹇孌孌小方席呼之曰公等請坐彼們張目鼓頰  
 有若啞喑故矣身意其責以草牽入幕鋪席後復曰公等坐彼們始  
 為入幕坐定而面貌耳目與我國樣人物是乎矣但赤黑白有若染色明  
 是異類故矣身書問曰何國居生乎彼們以粉筆書木板以給而非畫非  
 篆字不知豈遣又問以何幹而來則鼓頰縮口為噴水之狀而以愚意揣之  
 噴水之物鯨魚是已或料獵鯨之人是隱喻亦未能的知是乎旆矣等指口  
 指腹佯作餓狀則彼們自袖中出給一箇餅一箇果故果為受置彼們各持  
 烟茶竹而製作則如我國所謂土造臺是乎所一箇竹下體折傷故矣等息  
 請給我則投之地許我拾取乙仍于并與板書餅果而深藏緊裹以憑日  
 後統營標證是乎旆彼們對坐良久顧其同伴曰去矣而聲音與我人無  
 異矣等試撫其頭則曰勿阿而聲音亦同是乎矣一自歸後更不入來自後汲  
 泉改路于越谷是乎旆頃者退去大船長可四十餘把廣可十餘把而中建四

帆帆布上下兩端青綠而中則色白前後左右又掛小帆四箇而上下青中央白與大帆同是遣船中人不知幾許為遺棄末由問之無路所聞所見如斯而已矣等言月初自鬱島發船還歸是知乙仍于新造船汙物郡守躬往反閱是乎矣香木草范粮米破船木板外更無毫可執故船汙搜驗成毋更為修上為乎徐統營搜討公文段軍官徐文億自越松亭登陸歸去之路已為持去是如故盤問徐文億徑歸之由則以為文億非徒不綱水陸既已偵探歸路有無不妨故果為登陸而去是如乙仍于公文不為搜覓為乎徐自本郡報統營回題內因異樣船搜討果有此事諸漢并放送事是乎等以同題音粘後牒報亦為白有置異船偵探何等審慎而既見其船更無追後探踪且見其人為詳告衣形者實涉疑駭是白念叱除良禁島之久留造船亦詳報乙仍于更為題飭該邑使之查報是白加尼今月初八日時到付同郡守馳報內金尚吉等處更為查問是乎則所為內矣等四月初三日因統營分付與軍官徐文億同人鬱島而同月二十八日到泊閩四月初日破船偶逢越松萬

戶搜討歸船文億段初言同載於該船而出來則文億之歸果在於異舶未  
 逢之前是乎矣前招中精神迷亂誤以逢異舶歸路文億自越松徑歸據  
 納招故今復思惟有此更告是乎旒異據大船段只望其外不見其內人數幾  
 許無以知得汲水小船段頭尾窄尖如梭子樣而假量長為三把廣為二把是  
 乎旒汲水器段狀如皮負筥而汲水八漢面色段兩漢深黑三漢粉白一漢  
 黃兩漢赤身長六七尺是乎旒矣等問以何事出來而書于片紙而示之仍  
 給紙筆墨則彼們以矣等所給之筆書于矣等所給之紙則片紙異據書  
 乃是墨書而至於板上書則粉劃不無或渝之慮故金尚吉矣身手自加墨  
 於粉劃上欲為日久標證是乎旒彼們逢着矣等之日自南而來向南而去過  
 二日後矣等斫木次向東踰山而去則頃日逢着之漢汲水而去是去乙矣等立  
 在層巖之上良久指點則彼們汲水後載之小船仍為出海而極東雲海之  
 際有如大船意必是前日退去之船也汲水小船向往大船處而自是處再見  
 之後無論大小船不知何處去向是乎旒禁地造船事段矣等破船之後逢着

越松萬戶搜討船則二千名船格與草范糧米豈不欲同載而歸哉該萬戶託以船小難容戶載徐文億而分付曰汝等修葺已破之船退後出來亦云哉矣等不得已留連造出是如是乎徐搭軍等三捉入查問辭同然是如牒呈是白置有亦今此金尚言之八島既因統管送探而異類相逢適在二則兩禁島之留何其支離船隻新造若因破碎則萬戶順歸之船胡不同載是白乎喻揆以常情殆不近理是白分此徐良同去徐文億之去就既云自越松分路又白自島中徑歸者亦洩眩亂質問究竟在所不已而差送既在統管文億亦還本土之仍于待新統制使臣柳基常下來並為嚴加查問之意移文計料為白乎徐等以其招觀之異據大船雖未追躡小艇水手促席相對言語文字莫辨其何國居生而衣製形貌繫知其遠域人物是白如乎春間異船之自南向北者現沒無常則此亦彼船之經過海島者是白如隱喻嗣後瞭探執詰之節有不可以白久而暫弛故另加嚴飭於沿海各邑為白有在果所謂異據人書字板紙書劃俱係莫辨粉上加墨亦為失真而既發民招現納公庭是白乎等以同

金尚吉船中汁物異國書物數文依邑報修成冊上送于備邊司為白乎玆  
 屢度題飭查報之際修 啓日子自爾遲滯不勝悚惶緣由并以馳  
 啓為白卧乎事云云 已酉八月初九日

節到付禁御兩營廳 啓下關內節該因大臣 違奏禁御兩營鄉軍自今  
 十月當為始限五年停番收布事  
 命下矣停番收布上納等節待其上番年次更當措辭發關先以此意知委  
 各邑後形止狀

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詳細知委於上番軍所存各營為白乎玆緣由馳  
 啓為白卧乎事云云 已酉十月初九日

今已酉條道內各邑馬兵等依節目使之初秋後 營下合試來十月十三日  
 設行次推擇為白有等以緣由為先馳  
 啓為白卧乎事云云 已酉十月十六日

為宸貶事道內三鎮營將今秋冬等宸貶乙觀察使 徐箕淳同議等